

한국 최고의 포탈 서비스 업체로 부상할 터

“올해는 다양한 콘텐츠와 마케팅 정책을 펼쳐 최고의 포탈 사이트로 부상할 것입니다.” 한국 알타비스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평창정보통신 김영학 사장의 말이다. 작년 말 흑독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의 역량을 검색 서비스에 집중시킨 평창정보통신을 찾아가사업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글/박민식 기자>

평창정보통신(대표 김영학)은 91년 창립당시에는 아펙스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종합의료정보시스템 및 SI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97년부터는 인터넷, 인트라넷, 검색엔진 분야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업체이다.

현재는 美알타비스타와 공급 계약을 맺고 한국 알타비스타의 서비스 및 정보검색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창립 당시부터 수행하던 종합의료정보시스템 및 SI 사업은 ‘송림데이터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

평창정보통신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영학 사장은 한국IBM에서 10년간 근무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물로 한국 알타비스타의 성공에 건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김사장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인터넷은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산업이며 특히 포탈사이트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넷스케이프 센터, 마이

크로소프트 MSN, AOL, 야후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포탈 사이트는 향후 인터넷 비즈니스의 관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인터넷 포탈 서비스에 우리의 사활을 걸었다.”라고 밝혔다.

최고의 검색 제품을 위하여

평창정보통신의 주요 사업은 알타비스타 서비스를 중심으로 패키지 솔루션, 하드웨어 판매 분야로 나누어진다.

현재 한국 알타비스타 서비스는 98년 4월 오픈한 후 지난달 1일 사이트를 전면 개편한 상태이다. 김사장은 “기존 한국 알타비스타는 웹페이지 검색을 주요 전략적 무기로 삼았으나 이번 개편은 네티즌들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을 비롯해 확장된 시스템, 주제별 사이트를 체계화한 디렉토리 서비스, 뉴스, 지도검색, 영화, 스포

츠, 외환정보, 채팅을 제공하는 채널 서비스, 인터넷접속 서비스 등이다. 특히 디렉토리 서비스는 평창정보통신이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여 자체 개발한 것으로 이용자 중심의 16개 메인 디렉토리와 4만개 이상의 사이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패키지 솔루션 제품으로는 알타비스타 서치 인트라넷 버전 2.3과 알타비스타 서치 인트라넷 한글 익스텐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인트라넷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다. 인트라넷 버전 2.3은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인터넷, 그리고 기업내의 서버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으며 자신의 고유한 검색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다.

김사장은 이 제품에 대해 “한글 알타비스타 인터넷서비스 사이트처럼 작동되므로 별도의 사용교육 및 훈련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HTML, 텍스트, 워드프로세서, 프리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를 포함한 200가지가 넘는 여러

타입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 한글 익스텐션 제품은 오라클, 사이베이스, 잉그레스, MS 액세스, SQL, DB2 와 같은 구조적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할 때 사용되는 제품이다. 특히 DB 검색 뿐만 아니라 일반 파일 및 HTML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능이 통합 구현되어 있다.

컴팩과의 관계가 사업의 관건

평창정보통신의 최대 과제는 한국컴팩과의 관계 정립이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점을 둔 알타비스타는 컴팩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지난해 디지털사를 인수하면서 컴팩으로 넘어온 상태이다. 현재 평창정보통신은 美알타비스타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데, 한국컴팩도 알타비스타 서비스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하고 자체 추진에 미련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평창정보통신은 美알타비스타와의 장기계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김사장은 “컴팩이 계약을 안 할 이유는 없으며 그럴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컴팩은 평창정보통신이 한국에서 쌓아온 이미지와 콘텐츠를 동시에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사장이 이렇게 주장하는데는 우

선적으로 ‘www.altavista.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의 소유권을 평창정보통신이 갖고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컴팩은 새로운 도메인을 할당받아야 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는 美알타비스타에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컴팩이 이것을 자체 개발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윈윈(Win-Win)차원에서 컴팩과의 합작회사 설립이나 장기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김사장은 “한국

컴팩과의 합작회사나 알타비스타와의 장기계약이 해결된다

면 한국 알타비스타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밝을 것입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평창정보통신은 합작투자라는 전제하에 코스타ک 상장 및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 문의가 많아 한국알타비스타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알타비스타는 미진한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후나 심마니, 네이버 등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포털사이트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 야후코리아를 능가하는 한국적 포털사이트로 거듭날 것입니다.”라고 김사장은 의욕을 보였다.

한국알타비스타의 매출 목표액에 대해 김사장은 “지난해 7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20여명으로 줄일 정도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으며, 포털사이트인 만큼 많은 광고 수익이 예상돼 올해 말에는 월평균 2억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